

“여성의 진정한 매력은 감추어진 곳의 아름다움!”

유 희 현 · 유외현 산부인과 원장

대부분의 남성들은 외형적으로 섹시한 여성을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.

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모이다. 하지만 결혼 후에는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.

‘속 궁합이 잘 맞아야 잘 산다’고 어른들이 중요시 해 왔듯이 만족스런 부부관계야 말로 부부의 정을 돈독히 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.

요즈음엔 100일 이내의 결혼 생활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, 이미 아이를 낳고 살다가도 이혼·별거가 많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있다.

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90% 이상이 성 트러블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. 그만큼 부부의 속궁합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다.

앞으로는 남녀가 맞선을 볼 때, 궁합보다도 속궁합을 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?

성생활의 만족이야말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.

여성 성 기능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서는 질 근육 손상, 질 기능 저하, 질 근육 미숙 등을 꼽을 수 있다. 따라서 발기부전 등 특별한 질환이 없을 경우, 성 트러블의 과반수 이상은 오히려 여성에게 많은 편이다.

질 근육 손상은 주로 분만으로 인해 초래되며, 잦은 자위 행위나 잦은 유산도 원인이다. 최근에는 결혼 전 자위 행위를 즐기는 여성 중 다른 기구의 사용

짚은 유산, 출산, 갱년기 등은 여성의 질 수축력을 떨어뜨리고, 괄약근의 손상으로 질이 커지며, 힘이 없어지고 외음부의 변형이 초래되기도 한다. 남성의 발기력이 중요하듯이 여성의 질 수축력은 성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.

으로 질 근육이 이완되어 실제 부부 관계 시에는 불감증을 부르는 경우도 많다.

이밖에 질병이나 폐경,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의 질 기능 저하, 질 근육 미숙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.

부부간의 금슬 부조화가 나타날 때에는 여성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.

대표적인 자각 증세로는,

- ① 부부관계 시 조이는 느낌이 적거나 헐렁하게 느껴질 때
- ② 남성 이탈이 잦을 때
- ③ 성욕이 생기지 않으며 성 고통이 심할 때
- ④ 애액 분비가 적어 관계가 어려울 때
- ⑤ 불감증일 때
- ⑥ 탕 속에서 물이 질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
- ⑦ 관계 시 바람 빠지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날 때
- ⑧ 지속적으로 남편이 잠자리를 피할 때

위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성 기능 장애 전문병원을 찾아 자세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. 근전도 검사 결과 수축력이 50% 미만이면 수술 요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, 50%이상이면 운동요법이 효과적이다.

수술 요법에는 질 근육 보강술, 질 수축술, 질 성형수술 등이 있다.

‘지피지기 백전백승(知彼知己 百戰百勝)’은 부부관계에도 해당되는 말인 듯 싶다.

사례 1. “첫 성관계 후 멀어졌어요.”

어느 날 가냘프고 어려 보이는 한 여성이 찾아 왔다. 수줍음을 무척 많이 타는 그 여성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.

사연인 즉 6개월 간 사귀던 애인과 성 관계를 가졌는데, 그 일이 있은 후로 애인이 잘 만나주지 않고 자꾸 피하려 든다는 것이다.

애인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, 자신과 성 관계를 가질 기분이 나질 않는다고 헤어지자고 했단다. 질 속이 허공 같고 맨질맨질 하며 수축력이 없다면서 말이다.

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성은 “제 성기가 정상인지, 또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성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구요.” 라면서 하소연을 했다.

아버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올해 안에 결혼하라고 성화인데, 앞일이 깜깜하다고 했다. 애인은 친구의 오빠로, 예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결혼을 앞두고 성 관계를 가진 것이 뜻

6개월간 사귀던 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,
그 일이 있은 후로 애인이 잘 만나주지 않고,
자꾸 피하려 든다는 것이다.

밖에 화근이 된 것이었다. 이후로 그녀는 자신감을 잃었고 남자가 무서워졌다고 했다.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.

자세히 진찰을 해 보니 주름 벽도 많고 질도 크지 않은 편이었지만 질 수축력이 50%밖에 되지 않았다. 아직 분만하지 않은 여성인 까닭에 고난도의 수술을 해야 했다.

특히 질 입구 외음부에 수술 자국이 남아서는 안 되는 데다가 질 벽의 주름을 만든다고 마구 질 벽을 건드리면 바를린 샘이 막혀서 부부 관계가 힘들어 지기 때문이었다.

사례 2. “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대요.”

지방에서 한 부인이 질 검사를 받으러 왔다. 남편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2년 전부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.

성 관계도 의무적이고 예전의 따스함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.

뒷조사를 했더니 유부녀와 사랑에 빠져 데이트를 즐기고 있더라는 것이다. 전화를 녹음해 보니 자신에게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이 그 여자한테는 말 끝마다 “사랑한다”, “보고 싶다”고 하더라.

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남편

과 자신, 그리고 그 여자 부부가 함께 만났는데, 그 자리에서 남편이 오히려 그 여자의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.

자신도 이혼을 하겠다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없다고 했다. 그 자리에서 부부가 아주 심하게 싸움을 했다.

이 부인의 경우 첫째와 둘째 아이를 각각 3.7kg, 3.9kg으로 집에서 시어머니가 받아냈고, 셋째 아이는 재왕절개로 낳았다. 집에서 출산한 경우는 질 근육이 다칠 염려가 많다.

특히 질 입구를 절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만하면 질 근육이 손상을 입고 질 입구도 흉하게 변형되기 쉽다. 이 부인 역시 질 근육이 아주 많이 손상되었고, 질 벽도 밀려나온 데다가 질 입구가 크게 변형되어 있었다. 수축력 역시 20% 밖에 되지 않았다.

이 경우 기능적인 면도 문제가 많았지만 우선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였다. 여러 번의 면담을 거쳐, 먼저 질 근육 재건 수술로 수축력을 강화하고 질 입구는 성형수술을 했다.

세월이 많이 흘러 병원을 찾은 그녀는 예전보다 밝고 생기가 넘쳤다.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사이가 좋아져 행복하게 산다고 했다. 72